

한계 효용학파

경제학 연구의 전환

■ 경제 주체의 의사결정

♥ 경제주체가 반드시 사람일 필요가 없음.

♥ 기업 : 최종생산물 또는 중간재의 생산과 판매

♥ 정부부처 : 기업 생산물의 구입 또는 고용

경제학 연구의 전환

■ 경제 분석의 주관적 기초

♥ 교환에 참여하고 있는 경제주체의 선택과 기회

♥ 주어진 수단과 정해진 목표 간의 형식적 관계

🍀 즉, 선택의 논리에 관한 연구

♥ 경제학의 수학화

🍀 당대 경제학자마다 수학화에는 다른 의견

근대 학문으로서의 경제학의 발전

■ 학술지의 발간

♥ 단행본 → 잡지

♥ 학술지 : 영국, 1891년 이코노믹 저널

■ 학회의 창설

♥ 1833년, 영국과학발전협회, 에프분과

♥ 1856년, 경제 과학과 통계학 분과로 변경

근대 학문으로서의 경제학의 발전

■ 학과의 개설

♥ 동인도 대학 → 캠브리지와 옥스포드의 관련 강좌

♥ 런던대 BA, 영국 전역 순회 강좌

1. 한계 혁명 (Marginal Revolution)

■ 19세기 후반부 (대략 1850~1870년대)

♥ 1870년대부터 Neo-Classical Economics의 시작

♥ 지금까지 신고전파 경제학은 미시경제학의 주류

■ 노동가치론의 쇠퇴 → 시장이론

♥한계 개념이 unifying principle

■ 고전파의 장기동학 → 정태적 Equilibrium 분석

♥ 고전파의 시장이론 요소의 계승

♥ 시장을 정태적 문제를 해결하는 mechanism 으로 파악

<표 1> 고전학파와 한계효용학파의 비교

고전학파	한계효용학파

■ 연구방법과 이론구조

♥ 경제변수 간의 관계를 함수관계로 보기 시작

♥ 한계 개념 등장

♥ 자연스럽게 미시분야 연구가 활발해짐.

■ 한계혁명의 연속성

a. 벤담 (J. Bentham, 1748~1832)

♥ 공리주의는 한계효용학과 전체의 주류를 이룸.

♥ 효용 (utility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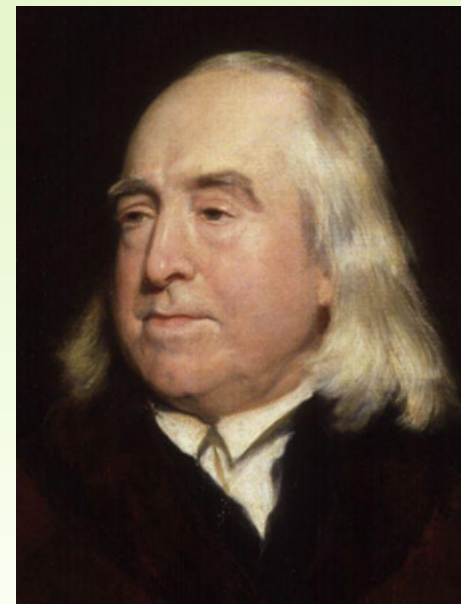
🌸 도덕과 법률을 평가하는 유일한 객관적인 원칙

♥ 덕성을 갖춘 사람

🌸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결과를

🌸 쾌락과 고통의 기준으로

🌸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사람



■ 한계혁명의 연속성

b. 한계개념의 보편화는 지체됨. 그 이유는?



🌸 제본스 → H. Sidgwick → A. Marshall

🌸 발라 → V. Pareto & E. Barone

🌸 멩거 → 오스트리아학파


■ 한계혁명의 연속성


c. 한계효용이론이란?

♥ 고전파에서는 노동가치론이 관심사

♥ 신고전파에서는 utility가 노동을 대신함. 효용은 주관적인 요소

♥ 물과 다이아몬드의 역설

 **Multiple discovery**

 **개념의 동시 발견**

Forerunners

♥ 기업이론

♥ 생산이론

♥ 소비자이론